



医薬品産業과 漢藥

서울대학교 生藥研究所

韓 龜 東

한국에서는 아직도 漢藥이 醫療 및 醫藥産業에 대한 寄與도가 크고 國際漢藥市場과의 交易도 적지 않은 現狀이다.

이제 1971년도 의약품의 총수출실적을 보면 漢藥材 73품목 3,003,185불(전년도 2,674,333불)이고 人蔘製劑 6품목 842,298불, 原料醫藥品 3품목 653,885불, 完製醫藥品 13품목 503,777불 合計 95품목에 총 5,003,117불이고 1970년도는 4,523,802불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년도에 있어서의 총수입실적은 원료의약품 729품목에 17,086,189불(전년도 14,691,119불), 완제의약품 398품목 2,628,648불, 한약제 107품목 1,491,662불(전년도 1,533,811불), 합계 1,229품목에 총 21,206,499불이고 전년도는 19,260,372불로 집계되고 있다.

앞서의 총계에서 볼때 1971년도에 있어서 의약품 총수출액 중 漢藥劑(人蔘製劑除外)의 수출액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의약품수출에 있어서 漢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가히 알수있으며 反面에 의약품수입에 막대한 外貨를 소비하고 있을뿐 아니라 149여만불에 달하는 漢藥材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엿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國內消費를 보더라도 국민의 多數가 아직도 漢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醫藥品産業에 있어서 漢藥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참으로 크다고 보겠다.

돌이켜보면 현대의약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것은 19세기 말엽이고 보면 우리민족은 유구한 세월을 두고 漢藥을 專用하여 왔으며 특히 高麗朝 初期까지는 주로 唐材(中國産藥材)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高麗中期中부터 점차 종래의 唐材依存으로부터 벗어나서 국산약재를 獎勵한 것은 다음과 같은 政府施策을 文獻上 찾아볼수 있는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即 국산약재를 唐材에 대하여 鄉藥이라 부르고 이 鄉藥의 自立을 위하여

- ① 鄉藥方書의 刊行
- ② 鄉藥의 鑑別을 위한 專門家의 國外派遣
- ③ 鄉藥分布의 調査
- ④ 鄉藥材의 種養 및 栽培勸奨
- ⑤ 鄉藥의 栽培 및 採取에 관한 指導
- ⑥ 鄉藥과 唐材와의 藥効對照試驗

등의 施策을 썼다.

이런 政府施策에 의하여 鄉藥이 많이 發掘되어 唐材를 代置하였고 國産漢藥의 큰 발전을 보았으며 멀리 日本에 까지 漢藥을 普及시킨 눈부신 업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燕山朝에 이르러 또 다시 衰退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李朝末葉에 西洋醫藥品이 急速히 導入됨에 따라 漢藥은 이에 壓倒되었고 또한 洋藥에 對峙할수 있는 깊은 研究와 改善의 努力이 없었기 때문에 漢藥은 날로 衰退一路를 걸었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漢藥에 對한 認識이 새로워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漢藥의 活路를 打開 코져 하는 氣運이 짙어가고 따라서 前述한바와 같이 醫藥品産業面에 있어서도 漢藥이 차지하고 있는 位置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漢藥界를 살펴볼때 아직도 舊態依然한 舊習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漢藥의 近代化 및 生産性 增大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漢藥에 對하여 多角的인 再檢討가 必要한것으로 생각된다.

漢醫學이 筆者에 對해서는 專門外의 領域이기 때문에 그의 眞價를 論評할 수는 없으나 自然哲學의 醫學觀과 長久한 經驗으로부터 昇華된 實證의 醫學觀에 立脚한 漢醫學原理가 바탕이 되어 사용되는 漢藥은 그 效能에 있어서 無視 못할 効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筆者뿐만아니라 많은 學者들이 認定하는 바이지만 다만 漢藥의 治療의 効果의 測定이 計量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科學的 客觀性이 分明치 못하여 漢藥發展의 큰 장애가 되고 있는것도 事實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藥品으로서의 價値, 或은 商品으로서의 價値를 認定 받을수 있는 處理가 等閑視 되고 있는點도 또한 無視 못할 要素라고 생각된다.

다 그렇다고는 말할수 없으나 그의 貯藏保管狀態를 보면 이것이 果然 醫藥品인지 그렇지 않으면 倉庫 한 구석에 내버려진 雜草인지 분간할수 없을만큼 소홀히 다루어져 있는 狀態를 볼때 漢藥의 發展策이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至極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要컨대 漢方醫學은 國民保健 擔當者로서의 重責을 지니고 있는 만큼 現代醫學 및 現代藥學과 提携하여 보다더 客觀性 있고 體系의인 保健活動을 展開하여야 할것이다.

유구한 傳承醫學이 獨自의인 特徵을 옹호하면서도 自然科學 基礎 위에 醫藥品産業의 一環으로서 漢藥을 發展시키는데 藥學者, 醫學者에 對한 要請인 것이다. 이런 見地에서 醫藥産業으

로서의 漢藥의 發展方案을 몇가지 다음에 開陳코져 한다.

1. 漢藥資源의 開發

(1) 漢藥基源藥草의 國內分布調査

產地, 品種, 數量等を 調査하여 漢藥資源에 對한 基礎資料를 作成해야 될 것이다. 國內生藥學者들이 흔히 藥用植物採集을 많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만 대개 斷片的이고 一時的인 結果에 그치는 感이 있고 큰 成果는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므로 조금만 長期的 眼目에서 組織化하여 施行한다면 그리 難事는 아닐것이다.

우리 朝上은 數百年前에 이미 如斯한 事業을 이룩하였으니 그의 後孫인 우리들이 이런것 하나 못할理 가 있겠는가?

(2) 漢藥基源藥草의 栽培獎勵 및 品種改良

前述한바와 같이 高麗朝부터 國產漢藥의 栽培를 獎勵하여 좋은 成果를 거두었다는 것이 史實로서 認定할수 있을 진대 우리도 이를 繼承發展시킬 義務가 있음을 切感한다. 特히 輸入漢藥의 國內栽培開發, 輸出可能漢藥의 増産等を 圖謀하는 意味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課題라고 생각한다.

이에 對하여는 우리나라의 現行制度上에도 改善할 點이 있다고 보겠는데 그것은 漢藥의 栽培는 農林部의 所管事項으로 되어 있고 醫藥品으로서의 漢藥管理等은 保健社會部의 所管事項으로 되어있어 事務를 執行하는데 있어 圓滑을 期할수 없을것도 豫想되므로 有終의 美를 거두기 爲하여는 行政系統을 一元化할 必要도 느낀다.

2. 漢藥의 現代化

(1) 成分 및 藥效의 研究

前述한바와 같이 漢藥의 發展은 阻害하고 있는 重要한 要因의 하나로서 藥効則定의 計量化가 至極히 困難하여 科學的客觀性이 分明치 못한다에 있으니 만큼 成分을 分析하고 各成分에 對하여 現代藥理學的 見地에서 藥効를 觀察하고 漢方醫學의 効能을 뒤바침 해야 될것은 再論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漢醫學의 見地에서 본다면 長久한 時日에서 얻은 經驗이 蓄積으로 이루어진 것이 漢藥이기 때문에 傳承되어온 漢方醫學의 効能을 그대로 是認코져 하려는 思考도 一部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나 아무래도 現代科學의 見地에서 볼때에는 그効能을 計量化할수있는 方法을 摸索해야 되겠으며 우선 成分研究와 藥理作用檢討로부터 이를 試圖하는 것이 漢藥을 科學化하는 첫 順序가 될것이다. 더군다나 常用되고 있는 漢藥中에는 아직도 그 成分이 未詳한 것이 많으므로 우선은 成分을 細密히 分析하고 그의 藥理作用을 究明하며 나아가서는 이들 成分의 相加性 또는 相乘作用 或은 이런 作用을 초월한 方向類換作用等を 檢討함으로써 어느程度 科學化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것이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漢藥은 單味로 使用하는 경우는 極히 드물고 대개는 傳承되어온 複合劑(四物湯등)를 使用하고 있는 까닭에 上述한 各作用을 多角度로 觀察하는것이 큰 意味가 있는

것으로서 近年에 이르러서는 前記 複合劑를 使用하여 綜合的인 藥理作用을 檢討하려는 研究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때 漢藥科學化에 새로운 動向이라고도 하겠다.

(2) 規格制度

前述한바와 같이 漢藥의 取扱이 너무나 無秩序하고 소홀하여 우선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으며 強力히 團束할 必要를 切實히 느낀다. 그러기 爲하여는 漢藥典을 따로 制定하여 모든 漢藥을 規格化해야 될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서 品質을 向上시킬수 있을것이다.

洋藥에 對하여는 “大韓民國藥典”이라는 法定書를 制定하여 醫藥品을 嚴格히 規格化하여 이에 어긋난 醫藥品에 對하여는 가차없이 이를 다스리고 있는데 反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못지 않게 使用되고 있는 漢藥에 對하여는 참으로 寬大하게 取扱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며 국민보건상 반드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特히 毒劇性이 있는 漢藥에 對하여는 그 成分의 均一成과 恒量維持가 必要할 뿐아니라 貯藏保管이 不備하여 成分의 變化를 招來할 우려도 있기때문에 이런 見地에서도 漢藥의 規格化는 時急히 要請되는 바이다.

(3) 藥形의 改良

原形을 脫皮하고 挫, 切, 粉, 엑스 등의 形態로 加工할 것을 模索해야겠다. 代表的 例를들면 日本의 某회사에서 發賣하는「加工附子末」을 들수있는데 이것은 특수 方法에 의하여 毒性을 除去한 附子粉末로서 總 Alkaloid 함량을 규정하여 安心하고 사용할수 있게 만들었다.

(4) 湯液, 合劑의 劑形化

服用을 簡便하고 쉽게 하기위하여 從來의 湯液 또는 合劑를 粉劑, 엑스劑, 또는 錠劑 등으로 劑形化한다.

가령十全大補湯의 「엑스劑」를 만든다면지 또는 이 「엑스」를 가지고 錠劑를 만드는 따위인데 日本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이와같은 劑形화된 湯劑, 合劑들이 많이 市販되고 있는 실정이다

3. 國內製藥資源으로서의 漢藥의 活用

근래 醫약품의 安全性問題등으로 新藥 開發이 鈍化되었고 合成藥品이 지나는 短點을 補充코져 그 方向을 天然藥物에 돌리기 시작하여 다시 漢藥이 脚光을 받게 되었고 이들의 藥劑開發이 국제적인 추세로 등장되었다 함은 前述한바와 같다.

또 漢藥은 一般의으로 安全性이 높기때문에 價格이 低廉하고 効能이 확실한 大衆用 家庭藥을 國產漢藥資源으로 開發 하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정하에서는 效果的이라 하겠다.

家庭常備藥中에는 좀 研究해보면 漢藥으로도 代置할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령 一例를 들어본다면 海人草 같은 것은 驅虫藥으로 登場시킬수 있을 것이며 또 龍膽같은 漢藥은 健胃消化劑로 開發시킬 수 있지않을까 생각된다.